

Part 2 — 시장을 읽는 눈

회차 도입 — 달러 가치를 알아야 환율도 보인다

· 정리 2026-05-14

환율은 1,460원, 그런데 강사님은 달러 약화된다고 합니다. 모순일까요?

Part 2-1강은 금리 신호등 룰북, 2강은 40년 저물가 시대 종언. 3강은 달러 가치의 미래 — 환율 결정 메커니즘 + 강달러 시대의 역사적 평행이론을 정리합니다.

회차의 출발점은 단순합니다 — 우리는 두 개의 환율을 각각 알아야 한다. 달러 가치의 미래(세계 기축 통화의 장기적 쇠퇴 압력)와 원화 가치의 미래(한국 구조적 문제로 인한 약세 압력)는 서로 작동 원리가 다릅니다.

그래서 달러 가치가 떨어져도 달러/원 환율이 오를 때가 많습니다. 회차는 17세기 네덜란드 굴덴의 평행이론으로 강달러 시대의 미래를 18장으로 풀어냅니다.

5~10%

1609~1709 100년간 뱅크 굴덴이 실물 금화보다 비싸게 거래된 신뢰 프리미엄 — 그러나 신뢰를 쌓았기에 사기를 칠 수 있었다

베센트 2026-01 '강한 달러 정책' 선언 = 17세기 암스테르담 은행 비밀 조작과 정확히 동일한 패턴?

환율 두 개를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혹시 이런 의문 드신 적 없으신가요? '달러 약화된다는데 왜 환율은 오르지?' 회차의 첫 답은 환율 분리입니다.

달러 가치의 미래는 세계 기축 통화로서의 장기적 쇠퇴 압력. **원화 가치의 미래**는 한국 구조적 문제(고령화·생산성 둔화)로 약세 압력. 둘은 작동 원리가 다릅니다. 그래서 **달러 가치가 떨어져도 달러/원 환율이 오를 때가 많습니다** — 원화가 더 빠르게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 달러 가치 vs 원화 가치 — 분리해서 봐야 하는 이유

환율	작동 원리
달러 가치의 미래	세계 기축 통화 장기 쇠퇴 압력
원화 가치의 미래	한국 구조적 문제 — 고령화·생산성 둔화

환율을 결정하는 3 핵심 요인

환율 결정의 가장 핵심 질문은 단순합니다 — '내가 이 돈을 쥐고 있으면 미래에 얼마나 많은 물건과 서비스를 살 수 있나?'

환율을 좌우하는 요인은 시기별로 다릅니다. 장기·중기·단기로 나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장기 — 그 나라의 생산성과 성장 잠재력입니다.

환율 결정 3 요인

기간	핵심 요인
장기	생산성 향상 속도와 성장 잠재력
중기	인플레이션과 금리, 그리고 신뢰
단기	무역수지와 경상수지

장기 환율 = 그 나라의 주가다

회차가 짙는 핵심 한 줄 — 장기 환율은 그 나라의 주가다(Stock Price). 환율은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클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 그 나라의 펀더멘털과 성장 잠재력으로 수렴합니다.

성장 가치주의 주가가 계속 오르듯 성장하는 나라의 통화 가치는 상승하고, 반대로 성장판이 닫힌 나라의 통화 가치는 하락합니다. 미국 자동차 산업이 어려움 겪으며 무역 적자가 누적되면 결국 달러 가치는 하락 압력을 받습니다.

■ 환율 = 그 나라의 주가

나라 성격

통화

성장 가치주 (계속 오름) = 통화 가치 상승

성장판 닫힌 나라 (하락) = 통화 가치 하락

달러 가치의 미래 — 패권 구도 변화

회차는 달러 가치의 미래를 패권 구도 변화로 정리합니다. **달러의 약화는 매우 높은 확률**입니다. 그러나 달러의 완전한 몰락이나 위안화의 부상은 아직 미지수입니다.

페트로 달러 이론은 1973년 OPEC과의 합의로 형성된 시스템이지만, 트럼프의 15,300조 원 미국 부채와 미국 자체의 신용 위험 누적으로 강달러를 무한정 유지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4~5세기 전 패권 통화의 한계점을 보면 — 17세기 네덜란드 굴덴이 가장 명확한 사례입니다.

■ 달러 가치 미래 3 변수

변수	확률
달러의 약화	매우 높음
달러의 몰락	미지수
위안화의 부상	미지수

굴덴 평행 — 1609 암스테르담 은행

굴덴은 네덜란드어로 황금. 1434년부터 네덜란드에서 금화·은화가 공식 사용됐지만, 상인들이 금을 조금씩 깎아내는(Clipping) 행위로 신뢰가 하락했습니다.

이 신뢰 하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네덜란드 7개 도시(암스테르담 등)가 함께 모여 **1609년 혁명적인 암스테르담 은행을 설립했습니다.** 무게를 정확히 재서 보관하고 그 가치만큼 장부에 기록 — **인류 역사상 최초의 정부 통화 발행 시스템 중 하나가 탄생했습니다.**

이를 통해 신용화폐 **뱅크 굴덴(Bank gulden)**이 등장했고, 사실상 유럽 최초의 기축 통화로 자리잡았습니다.

■ 굴덴의 시작과 신용화폐 탄생



100년 신뢰 + 5~10% 프리미엄 — 신뢰의 기적

1609년부터 100년간 암스테르담 은행은 인류 역사상 보기 드문 신뢰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정부 통화였던 bank guilder가 **실물 금화보다 5~10% 비싸게 거래될** 정도로 신뢰 프리미엄을 누렸습니다. 골프 회원권 프리미엄과 비슷한 결입니다 — 실물 가치에 신뢰의 무게를 더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 100년 신뢰가 결정적 변곡점을 만들어냈습니다 — **신뢰를 쌓았기에 사기를 칠 수 있었다**는 역설입니다.

■ 100년 신뢰의 기적

17세기말 — 동인도 회사 적자와 비밀 명령

여기서 강의는 가장 결정적인 흐름의 변곡점에 도달합니다. 17세기말 네덜란드 국운이 기울며 동인도 회사가 심각한 적자에 빠졌습니다.

시청이 암스테르담 은행장에게 **비밀 명령**을 내렸습니다 — "동인도 회사가 망하면 시가 망한다 — 금고 돈을 몰래 빌려달라". 100% 실물 금·은으로 담보된 정부상 화폐였던 뱅크 굴덴이 이 시점부터 사실상 가짜 돈 발행의 위기에 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100년 동안 쌓아온 신뢰 시스템에 균열을 일으키는 결정적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카드에서 그 결과로 펼쳐진 가발 시대를 봅니다.

가발 시대 + 베센트 평행 ★

그 결과 네덜란드는 사실상 가짜 돈으로 100년간 호황을 이어가는 **가발 시대(Pruikentijd)**에 진입했습니다. 17세기말 부자들이 수천만원~억대 가발을 쓰던 시대 — 강한 굴덴으로 다른 나라 물건 빠르게 사면서 흥청망청 소비.

암스테르담 은행은 통화 가치 하락 방어에 적극 개입 — 도둑이 제발 저린 격이었습니다. 강의는 결정적 평행을 짚습니다 — **2026년 1월 베센트 미 재무장관의 '강한 달러 지속 유지' 선언이 17세기 암스테르담 은행 비밀 정부 조작과 정확히 동일한 패턴입니다.** †1

■ 강한 굴덴 vs 강한 달러 — 17세기 vs 21세기

시대	패턴
17세기 암스테르담	통화 가치 하락 방어 적극 개입
21세기 베센트 (2026-01-28)	'The U.S. always has a strong dollar policy'

강한 통화의 역설 — 제조업 몰락

강한 굴덴이 가져온 결과는 결국 **제조업 몰락**이었습니다. 강한 통화는 자국 제조업의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립니다.

네덜란드산 모직물·선박 가격이 지나치게 상승했고, 기술자들이 영국으로 대이주하면서 **영국 산업혁명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제조업이 망하면 무역 적자로 굴덴 가치가 떨어져야 하지만, 비밀 정부 조작으로 거짓 강세 유지하다 결국 제조업이 거덜난 결정적 사태.

강한 굴덴으로 흥청망청 → 결국 몰락의 길. 강한 통화의 함정은 단기적 사치를 가져오지만 장기적 제조업 몰락이라는 치명적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 강한 통화의 역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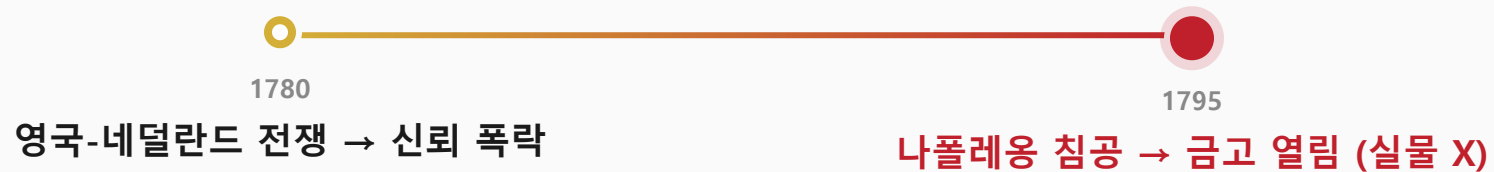
1780 신뢰 폭락 + 1795 금고 열림

기적 같았던 신뢰 시스템도 결국 무너지는 순간이 도래했습니다.

1780년 영국-네덜란드 전쟁 발발이 결정적 트리거 — 영국 해상 봉쇄로 은행에 은화 없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면서, 암스테르담 은행이 **뱅크 굴덴**을 실물 은화로 바꿔주는 걸 중단해야만 했습니다. **뱅크 굴덴** 가치가 폭락하고 네덜란드 시대가 사실상 끝났습니다.

1795년 나폴레옹 침공으로 암스테르담 은행 금고가 열리자 실물 금·은이 거의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뱅크굴덴은 사기다'라는 인식이 본격 확산됐습니다.

■ 결정적 종언 — 1780 + 1795



암스테르담 은행 vs 美 연준 4축 평행이론 ★

이 표는 강의의 핵심 평행이론을 보여줍니다. 17세기 암스테르담 은행과 21세기 미국 연준의 패턴이 놀라울 정도로 유사합니다.

위기 대상의 변화, 조작 방식, 화폐 종류, 시대 차이까지 모두가 동일한 패턴 — 본질은 동일합니다.

4축 평행이론

축	17세기 암스테르담	21세기 美 연준
위기 대상	동인도 회사 (파산 직전)	월가 (2008 파산 직전)
조작 방식	비밀 대출	양적완화
화폐 종류	뱅크로 가짜 금 창조	클릭 한번 무제한 달러
시대 차이	강한 굴덴 + 가발	강달러 + 파티

3 예고 ① 내부자 대탈출

회차는 금고가 열리기 직전을 알리는 3 예고를 짚습니다. 첫 번째는 **내부자들의 대탈출**.

1790년 대지위에서 귀족들의 은 식기·금 장신구 사재기, 상인들의 굴덴 대신 요구불, 미술품 줄선 정보 누렸던 서민들의 모습이 결정적 신호였습니다. 현대에 동일한 신호 — **중국·러시아·폴란드·인도 등 중앙은행이 달려 → 금 사재기**.

회차 시점 직후 데이터로 검증 — 폴란드 2026년 20톤+ 매입(700톤 목표), 중국 PBOC 18개월 연속 매입(누적 2,257톤), 인도 RBI 누적 822톤. WGC 2026년 매입 전망 **850톤**. **68% 중앙은행이 2026 금 비중 ↑ 응답.** †2

■ 2026 중앙은행 금 매입 (회차 시점 검증)

3 예고 ② 경제학 교과서가 찢어지고 있다

두 번째 예고는 경제학 교과서가 찢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과거 정상적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이 금값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 '이자를 주는 금에 돈이 몰린다'는 경제학적 원리. 그러나 지금은 이 원리가 무너졌습니다. **실질 금리가 급등하는 상황에서도 금값이 동시에 폭등하는 기현상** — 역사상 유례없는 동반 상승입니다.

이는 시장이 "이자는 필요 없다, 원금이나 돌려달라!"라고 외치고 있는 결과입니다. **달러 시스템(은행) 자체에 대한 신뢰 붕괴** — 굴덴과 정확히 유사한 결입니다.

■ 경제학 교과서 vs 현실

과거 정상

금리 인상 = 금값 하락

이자 주는 자산에 돈 몰림

지금 기현상

실질 금리 급등 + 금값 폭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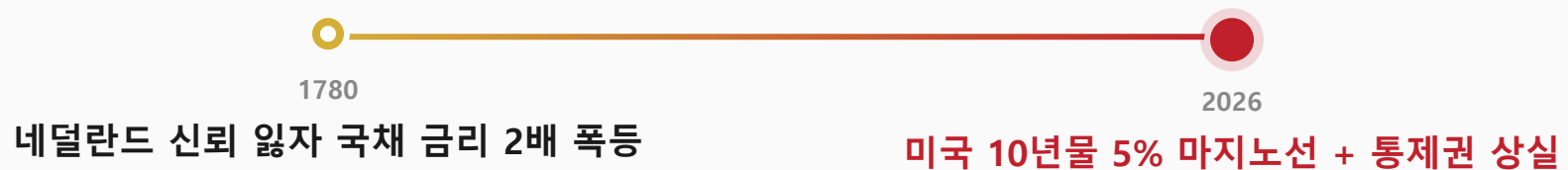
'원금이나 돌려달라!'

3 예고 ③ 시장의 반란 — 5% 마지노선

세 번째 예고는 **시장의 반란**입니다. 미국 국채 금리 5%를 돌파하는 것이 결정적 신호 — 미국 정부 이자 비용이 폭발하는 상황으로, 국방비보다 이자를 더 많이 내는 '낭쟁의 제국'으로의 인증.

통제권 상실 (Loss of Control) — 연준이 금리를 내리려 해도 시장 금리는 오히려 폭등하는 현상. 1780년 네덜란드 굴덴 시스템이 신뢰를 잃자 국채 금리가 2배로 폭등한 사례와 정확히 동일한 패턴입니다.

1780 vs 2026 — 시장 반란의 평행



3 트리거 ① 국채 경매 실패 (Failed Auction)

금고의 비밀이 들통나는 첫 번째 트리거 — 국채 경매 실패. "미국 정부의 신용카드"가 한도 초과된 날을 의미합니다.

3단계 시나리오로 진행됩니다. 마지막 3단계 — 연준 YCC '결국 내가 다 살게' 선언이 사실상 무제한 달러 발행 시스템의 본격 시작이며 달러 가치 폭락의 결정적 신호.

■ 국채 경매 실패 3 단계

3 트리거 ②③ — 금 실물 + 페트로 달러

두 번째 트리거 — 금 거래소 '실물 인도 거부'. COMEX에서 '현금 정산 NO, 실물 금'으로 대규모 요구. 거래소 재고 바닥 → 이중 가격 출현(선물 \$2,500 / 실물 \$5,000). 회차 시점 직후 — 분석가 Bill Holter가 **2026 3월 COMEX 은 default 가능성** 경고. †3

세 번째 트리거 — 페트로 달러 독점 붕괴. 사우디가 '달러만 안 받아'가 아니라 '달러도 받지만, 위안화·금으로도 결제하세요' 빗장 풀림. 회차 시점 직후 — 사우디·중국 \$7B 통화 스왑 + 2026-03 인도 정유사 러시아 원유를 위안화·UAE 디르함으로 결제 + 이란이 위안화 호르무즈 통행료 부과. †4

■ 트리거 ② + ③ 회차 시점 검증

트리거	회차 시점 신호
② COMEX 실물 인도	2026-03 은 default 경고 / 1월 신청 40Moz (평소 1~2)
③ 페트로 달러 붕괴	사우디·중국 \$7B 스왑 / 인도 위안화·디르함 결제

Part 2-3강 마무리 — 굴덴 평행이론 + 결론

본 회차의 핵심 메시지는 두 줄로 압축됩니다.

1 달러 가치의 미래 = 17세기 네덜란드 굴덴 평행이론. 1609 암스테르담 은행 + 100년 신뢰 → 17세기말 비밀 명령 → 가발 시대 → 베센트 평행 → 강한 통화 역설(제조업 몰락 + 영국 산업혁명) → 1780 신뢰 폭락 → 1795 금고 열림. 21세기 미국 연준이 같은 4축 패턴을 정확히 따르고 있다.

2 3 예고 + 3 트리거 모니터링. 예고 — 내부자 대탈출(중앙은행 금 매입 850톤 전망) / 교과서 찢어짐(실질 금리 + 금값 동반) / 시장 반란(5% 마지노선 + 1780 평행). 트리거 — 국채 경매 실패 / COMEX 실물 인도 거부 / 페트로 달러 독점 붕괴. 매월 들여다볼 룰북.

달러가 죽어갈 때(Crack-up Boom)는 모든 자산이 동시 상승하지만, 죽고 난 뒤(Death Phase)에는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 — 독점 빅테크만 생존 / 금 압도적 우위 / 미국 국채 신뢰 몰락 / 부동산 유동성 함정.

그러나 달러가 아무리 몰락해도 원화보다는 달러가 훨씬 강하다 — 이는

part1_05·part2_01에서 누적된 메시지의 연장선입니다. 강의는 직접 매수·매도 권유를 강제하지 않습니다. 굴덴 평행이론과 3 예고 + 3 트리거 모니터링 룰북을 제시할 뿐입니다.

달러는 무너진다 — 그러나 원화보다는 달러가 여전히 훨씬 강하다.

다음 강 — Part 2-4 (Part 2 시리즈 마무리)

원화 가치 몰락에 따른 대응 방법

본 회차 §결론 '달러보다 원화가 더 약함'의 본격 분석. 우리의 월급과 아파트(원화 자산)는 무사할까? 매주 목요일 게시.